"영업 제일주의…지역과 상생·동행 하겠다"

광주은행 첫 자행출신 송종욱 행장 취임

금융약자 위한 지원 강화 사회공헌대상 신설 상생 경영

송종욱(55) 광주은행장은 27일 "광주은 행 창립 49년만에 처음으로 자행출신 은 행장으로서 향후 광주은행 100년을 결정 할 중요한 시기에 큰 소임을 맡아 지역사 회 발전과 새로운 광주은행 역사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송 행장은 이날 광주은행 본점에서 열 린 제13대 행장 취임식 취임사에서 "특히 광주은행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광주·전남 지역민 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송 행장은 향후 추진할 주요 핵심 경영 가치로 "세일즈 퍼스트, 즉 영업제일주의 와 미래 경쟁력 확보, 상생과 동행"이라고 밝혔다.

또 "영업현장은 '은행의 성지'이자 '전 사'이며 '최전선' 이라고 말하는 송 행장은 "영업점의 영업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 제는 과감하게 없애고 본부부서는 적극적 으로 영업점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겠 다"며 "혈연, 학연, 지연을 철저히 배제하 는 3무(無) 정책을 인사의 첫 번째로 삼고 부점장 등 주요 인사에 대해서는 모든 임 원이 참석하는 인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송 행장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 재를 양성하고 젊고 강한 조직을 만들겠 다"며 "또한 주력 영업지역인 광주전남의 기반을 촘촘하고 견고히 다지고 특히 전남 지역에 대해서는 시정점유율 확대를 위한 3개년 전략을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겠



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투트랙 영업전략으로 광주· 전남지역과 더불어 성장 영업지역인 수도 권에서 5년, 10년 후의 미래 먹거리를 위 한 신시장 개척전략을 추진해 수도권의 풍 부한 자금을 낮은 비용으로 조달해 광주 전남지역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지원하 고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송 행장은 "중서민을 위한 금융 상 품과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개 발해 금융에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 고, 스타트업 기업과 청년창업기업에 대 한 지원도 확대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금 융지원을 확대하고 금리도 우대하겠다" 고 말했다.

송 행장은 상생과 동행을 위해 "광주은 행의 사회공헌사업 분야를 확대하는 등 사회적 책임경영을 하겠다"며 "이를 위해 사회공헌대상을 신설해 적극적으로 공헌 활동에 참여한 최우수부점과 최우수직원 을 선발해 격려하고 포상하겠다"고 말했

송 행장은 조조가 적벽대전에서 패하고 퇴각하던 중 부하들이 진흙 구덩이 탓에 행군할 수 없다고 할 때 일침을 놓은 '봉산 개도 우수가교'(逢山開道 遇水架橋·산을 만나면 길을 만들고 강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다)를 인용해 "우리에게 열정이 있는 한, 우리가 모두 함께하는 한, 세상에 오르 지 못할 산은 없으며, 건너지 못할 강도 없 다"며 광주은행의 내일을 열어가는데 직 원들과 항상 함께 하겠다는 다짐과, 적극 적이고 진취적인 '광은인'의 모습을 주문

송 행장은 순천출신으로 순천고, 전남 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1991년 광주은행에 입행해 공보팀장, 여의도지점

장, 서울지점장, 서울영업본부 부행장, 영 업전략본부 겸 미래금융본부 부행장 등을 역임했다.

송 행장은 광주은행 입사 후 27년간 은 행업 전반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식견을 쌓았으며 원만한 대인관계로 금융계 전반 에 걸쳐 다양한 인맥을 보유하고 있는 것 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는 '고객이 없으면 은행은 존재 하지 않는다'는 신조를 가지고 '고객만족' 을 최우선으로 강조해 와 앞으로 임기 동 안 김한 JB금융지주 회장 체제의 바통을 이어받아 광주은행을 한 단계 도약시킬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더불어 송 행장 은 핀테크와 인터넷뱅크로 대표되는 새로 운 금융환경에 대응하면서 조직의 안정과 내실화, 외연 확장이라는 경영과제를 무 난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372.57 (-1.75)

1.89% (+0.06)

1 코스닥 649.24 (+6.84)

👚 환율 (USD) 1140.70원 (+3.90)

효성 국내 최대 태양광 연계 ESS 준공

효성은 한국남동발전 영흥본부 태양 광발전단지에 국내 최대 용량(7MW/18MW h)의 '태양광 발전 연계 에너지저장장치

(ESS)'를 완공했다고 27일 밝혔다. 태양광 연계 ESS는 낮에 태양광 발전 으로 생산된 전력을 저장해둔 뒤 밤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장치다.

이번에 설치된 ESS는 전력제어시스 템(PMS), 7MW급 전력변환장치(PCS), 18MWh급 리튬이온배터리로 구성됐다.

효성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전체 시스 템의 충·방전량과 전력 공급 시간 등을 조절할 방침이다.

효성은 2009년 ESS 사업에 뛰어들었 으며 2012년 구리 농수산물센터에 250 kW급 ESS를 처음 공급했다.



평창 풍력단지에 설치된 ESS(에너지 저장장치) 일부인 PCS(전력변환장치) 를 관계자가 살펴보고 있다. 〈효성 제공〉

이어 제주 조천(4MW/8MWh), 제주 가파 도(2MW/3MWh), 강원도 평창 풍력(6MW/18 MWh) 등 ESS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있 /김대성기자 bigkim@

한국광산업 미래를 묻다

광기술원 오늘 서울서 워크숍

한국광기술원(원장 김영선)은 국내・ 외 제로에너지빌딩 분야의 정책, 기술이 슈, 시장전망 등 방향성 제시를 위한 관 련 전문가 워크숍을 2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제로에너지빌딩(Zero Energy Building) 분야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와 신 시장 창출을 통한 국내 에 너지 산업 발전을 위해 열린다. 제로에 너지빌딩은 건물 외부로 유출되는 에너 지를 최소화하고, 지열과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 등을 활용해 냉난방, 전 력 공급, 취사까지 모든 에너지 소비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건물을 뜻한다.

워크숍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건 물에너지 자립률 20% 이상 향상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기반 액티브 건축 설비 통합 제어 표준 플랫폼 기술개발 과제 협력 등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워크숍 1부에서는 '제로에너지빌딩의 동향과 미래', 2부에서는 '제조에너지빌 딩의 조성, 그에 따른 적용 기술과 사례' 에 대해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이어 중앙대학교 박세현 교수를 중심 으로 패널 토론도 진행된다.

한국광기술원은 에너지 자립률 향상 을 위한 통합제어 플랫폼 기술 개발, 국 제표준화를 통한 상용 촉진 및 해외시장 선점을 위해 산·학·연 혁신주체와 협력 을 추진해 왔다. /김대성기자bigkim@

아시아나, 최첨단 여객기 A350 3호기 도입

국내 유일 기내 유료 인터넷

아시아나항공은 27일 기내 인터넷 서 비스 등이 제공되는 최첨단 여객기 A 350 3호기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A350 3호기 는 26일(현지시각) 프랑스 툴루즈 에어 버스 본사를 출발해 이날 오후 4시 인천 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A350 3호기가 도착하면 아시아나는 인천공항에서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과 번영을 기념하는 도입 행사를 진 행한다.

아시아나는 올해 4월 처음 A350을 도 입한 데 이어 7월 2호기를 들여와 현재 장거리 노선인 인천~샌프란시스코 노 선에 주 7회 운항하고 있다. 중단거리 노 선에는 인천~오사카, 인천~하노이, 인천~마닐라, 인천~상하이 등에 투입 되고 있다.

동계 시즌부터는 인천~런던 노선에 도 A350을 투입할 계획이다.

현존하는 최첨단 항공기로 꼽히는 A 350은 국내 여객기 중 유일하게 기내 유 료 인터넷과 휴대전화 로밍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대성기자 bigkim@

섬진강 횡단 국도 2호선 완공

광양 진월면~경남 하동 목도리 10분 단축

섬진강을 횡단하는 국도 2호선 신설 구 간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전남 광양과 경남 하동이 한층 더 가까워질 전망이다.

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국 도 2호선 진상~하동 1공구 도로건설공사 가 마무리돼 오는 29일 정오부터 차량통행 을 시작한다.

진상~하동 1공구 공사는 전남 광양시 진월면에서 경남 하동군 목도리에 이르는 7.01㎞ 구간에 2차로 도로를 신설하는 사

국도 2호선 기존 구간은 급커브 등이 많 아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지속적 으로 제기돼 왔다.

지난 2009년 착공했으며 총 110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했다.

신설된 도로는 교량 4개소와 터널 1개 소, 교차로 3개소 등을 설치해 광양과 하 동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통하면 광양에서 하동까지 운 행시간은 10분, 운행거리는 7.3km 단축된 다. 이와 함께 인근 진상~하동 2공구 (2018년 12월)와 세풍~중군(2018년 12 월), 중군~진정(2019년 12월) 등이 잇따 라 개통할 경우 순천~광양~하동 구간을 연결하는 국도 벨트가 완성된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전남 광양과 경남 하동을 연결하는 섬진강대교. 가까워진 광양-하동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제공〉



목포 T.(061) 284-0485 / 여수 T.(061) 683-0485 / 순천 T.(061) 726-0482 / 광양 T.(061) 795-0485 WWW.ipalg.co.kr

를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 점) 서석동 남동성당옆 062) 227-9940

062) 227-9970 02) 765-994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